함께 생각해 봅시다!

다음 1~3 중에서 'SDGs' 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어느 것일까요?

1.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를 의미하며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것.
2. 'SDGs' 에는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가 있다.
3. 주로 개발도상국의 목표이며 2001년에 책정된 것이다.

※힌트 … 2쪽의 기사를 참조해 주십시오.

수요일은 LGBT 상담의 날 ～인권상담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사카이시에서는 '인권상담 전화' (전용회선)를 개설해 다양한 인권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화로는 매주 수요일에 LGBT 등의 성적 마이너리티(소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분들의 상담도 접수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인권상담 전화 072-228-7364

상담 시간 월~금요일(공휴일, 연말연시는 제외)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 마감은 오후 4시 30분. 1회 상담은 약 30분)
※매주 수요일은 LGBT 등 다양한 성에 관한 상담을 접수.
※면접 상담 있음. 상기 전화로 예약해 주십시오.
※상담하시는 분의 비밀은 지켜드립니다.

LGBT란

(L)레즈비언
동성을 좋아하는 여성
(G)게이
동성을 좋아하는 남성
(B)바이섹슈얼
이성을 좋아하기도 하고 동성을 좋아하기도 하는 사람
(T)트랜스젠더
출생 시에 결정된 성(육체의 성)과 본인의 성 인식(마음의 성)이 다른 사람

※LGBT 외에도 다양한 성이 있습니다.

사카이 세이프 시티·프로그램에 대하여

UN Women(성평등과 여성의 권한을 위한 국제연합기구)이 전세계에 호소하여 각 도시에서 도로나 공원 등의 '공적 공간' 에서 여성과 여자아이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방지/감소시키는 방범 모델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세계 각 도시에 그 모델을 제공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사카이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 운동에 참가를 표명하고 '사카이 세이프 시티・프로그램' 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실현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답:①
(②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가 있습니다. ③은 MDGs(밀레니엄 개발목표)의 설명입니다.)

2017년도 마음의 소리

사카이시 인권협 소식

Vol.39

우리의 도시 사카이에서 인권 문화의 꽃을 피우자!

목차

P1…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란?
P2…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에서)
P3…복합 차별을 통해서 보는 인권 (전체 연수회에서)
P4…인권과 도시 조성의 형태 (학구 추진위원 연수에서)
P5～6…'나의 인권 메시지' 특선작품 소개
P7…인권 퀴즈 등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약칭:인권협)에서는 여기서 소개하는 구민 축제나 이벤트를 통해 '인권 풀뿌리 운동'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펼쳐지게 될 다양한 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印							

편집・발행/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2018년 3월 발행)

사카이시 사카이구 미나미카와라마치 3-1 사카이시 인권추진과 내
TEL 072-228-7420 FAX 072-228-8070
URL http://www.jinkenkyo.jp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약칭:진켄쿄/인권협) 란?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는 부라크(部落/부락) 차별을 비롯한 일체의 차별이 없는 밝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1979년 7월에 발족한 시민조직입니다.

다양한 인권계발(啓發) 활동을 통해 모든 분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평화롭고도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 풀뿌리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장:가나마루 나오히로

가맹하고 있는 단체와 부회

사카이시 교육회
사카이시 갱생보호여성회
사카이시 어린이회 육성협의회
사카이시 재일외국인 교육연구회
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
사카이시 사회교육위원회의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사카이시 사립 유치원연합회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사카이 장애인단체연합회
사카이시 청소년 지도원 연락협의회
사카이시 인권교육연구회
사카이시 농업협동조합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 협의회
사카이시 보육회
일반재단법인 사카이시 모자·과부 복지회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사카이 민간 교육보육시설 연맹
사카이시 민생위원 아동위원 연합회
사카이 상공회의소
사카이시립 교원장회
일반사단법인 사카이시 노인클럽연합회
사카이 인권옹호위원협의회 사카이시 지구위원회
사카이지구 행정상담위원회
사카이시 보호사회 연락협의회
사회복지법인 사카이시 사회복지협의회
일반사단법인 오사카부 전수학교 각종학교 연합회
자유 도우와(同和/동화)회 오사카부 본부 사카이지부
제4학구 8지구 공립학교장회
주식회사 UR 커뮤니티 서일본 지사 센보쿠 주거센터
부라크(部落/부락) 해방동맹 오사카부 연합회 사카이지부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기업부회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종교부회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인터유스 사카이부회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임원을 소개합니다

회장/가나마루 나오히로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기업부회)
부회장/구보 데루오 (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
부회장/야마구치 노리코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하시모토 아키라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 협의회)
부회장/시라모토 다다시 (사카이시 보육회)
부회장/가사이 유타카 (사카이시립 교원장회)
부회장/나카타 리에코 (부라크(部落/부락) 해방동맹 오사카부 연합회 사카이지부)
부회장/요시무라 세이지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종교부회)
회계/핫토리 세쓰코 (사카이시 갱생보호여성회)
회계/오구라 미쓰코 (사카이 인권옹호위원협의회 사카이시 지구위원회)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제39회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2017년 12월 2일 실시)

강연:이케가미 기요코(池上 清子) 씨
(공익재단법인 플랜 인터내셔널 재팬 이사장/나가사키대학 대학원 교수)

2015년 9월의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제 목표입니다.

지구상의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지속 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17개의 목표 및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DGs란?
SUSTAINABLE 지속가능한
DEVELOPMENT 발전
GOALs 목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께 …

우리들의 SDGs ~작은 한 걸음이 세계로 이어진다~

-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아깝다'라는 마음을 지역사회에서 공유하자.
- 여성과 어린이가 활약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자.
-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소중히 만들어 나가자.

지적 장애인들의 밴드 살사 검테이프가 미니 라이브 무대를 열었습니다

살사 검테이프는 지적장애인들이 결성한 프로 록 밴드. 평소에는 가나가와현 아쓰기시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양동이에 검테이프를 붙인 수제 북으로 자유로운 리듬 세션을 시작했으므로 이 밴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밴드가 연주하는 음악과 힘차고 역동적인 플라스틱 양동이의 북소리는 듣기 좋은 음색으로 공연장에 울려 퍼졌고 장애가 있는 분도 없는 분도 함께 어울려 마지막에는 공연장 전체가 하나가 되어 신바람나는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살사란 … 쿠바 음악에 재즈 요소를 가미한 리듬이 주체가 된 새로운 라틴 음악.

인터유스 사카이(IYS)의 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터유스 사카이에서는 올해 대만으로의 청년 파견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찾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3명의 단원이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투어에서 배운 것을 단원들이 돌이켜보며 깊이 성찰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께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리 인터유스 사카이는 앞으로도 인권감각과 국제감각을 익혀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육성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SDGs의 17개 목표 중에서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목표로 이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합 차별을 통해서 보는 인권’

2017년 전체 연수회 심포지엄

2017년 8월 17일 썬스퀘어 사카이에서 ‘복합 차별을 통해서 보는 인권’ 이라는 테마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복합 차별’ 이란?

‘복합 차별’ 이란 몇 가지의 차별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차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의 힘든 삶은 2가지 차별의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곱셈처럼 복잡합니다.

복합 차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면화되기 어려워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당사자도 주위 사람들도 ‘장애가 있으니까’, ‘여성이니까’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바람에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패널리스트: 나카타 리에코(中田 理恵子) 씨 (부라크(部落/부락) 해방동맹 오사카부 연합회 사카이 지부장)
오다 다카코(小田 多佳子) 씨 (NPO 법인 사카이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장)
리 세쓰코(李 節子) 씨 (나가사키 현립대학 시볼트교 대학원 교수)
코디네이터: 야마구치 노리코(山口 典子) 씨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위원장)

전문위원회에 대하여

2017년도부터 시작된 전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개의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인권과제에 대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활발한 활동・계발(啓發)을 추진해 나갑니다.

도우와(同和/동화) 문제 전문위원회

[사카이시립 인권교류센터]

헤노마쓰 인권역사관 견학 및 필드워크를 실시하여 사카이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 전문위원회

[사카이시립 여성센터]

2018년 4월 1일부터 ‘사카이시립 남녀공동 참여센터’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성센터를 견학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카이시의 운동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인권 전문위원회

[사카이시립 건강복지 플라자]

‘사귀어 보자’를 표어로 내걸고 건강복지 플라자의 시각/청각 장애인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장애가 있는 분들과의 교류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도 학구 추진위원 연수회

매년 10월~11월에 사카이 시내 각 구에서 총 7번, 인권에 관한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구 추진위원 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일반 시민 분들도 참가하십니다.

※학구 추진위원이란…학구 추진 대표자(학구 대표자) 및 학구 추진위원은 인권협을 구성하는 일원입니다. 학구 추진위원은 학구 자치연합회 임원・단위 자치회장・학구내 각종 단체위원이나 각 학구내에서 인권계발(啓發)을 위해 열렬한 의욕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 학구 대표자께서 추천을 해 주십니다.

2017년도의 학구 추진위원 연수회에서는 각 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학습했습니다. 바쁘신 중에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정	테마	강사	개요
미나미구	10월 19일(목)	여성 인권	마사이 레이코(正井 禮子) 씨 (NPO 법인 여성과 아이들 지원센터 위민스 넷・고베(神戸) 대표이사)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여성 인권에 대해 실제 이야기 등을 예로 들어 발언해 주셨습니다.
히가시구	11월 7일(화)			
니시구	10월 27일(금)	도우와(同和/동화) 문제	이케가야 게이스케(池谷 啓介) 씨 (NPO 법인 생활을 만드는 네트워크 키타시바 사무국장)	미노오시 기타시바 지구에서의 인권과 도시조성 시책을 중심으로 발언해 주셨습니다.
미하라구	10월 30일(월)	고령자 인권	야마모토 히데키(山本 秀樹) 씨 (‘치매환자와 가족의 모임’ 오사카부 지부・의사)	의사의 관점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해 발언해 주셨습니다.
기타구	11월 6일(월)			
사카이구	10월 31일(화)	어린이 인권	이토 가요코(伊藤 嘉余子) 씨 (오사카 부립대학 지역보건학역 복지학류 교수)	어린이 학대 등 어린이 인권에 대해 발언해 주셨습니다.
나카구	11월 28일(화)			

내년도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구민 축제에서 계발(啓發) 패널을 전시했습니다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는 각 구민 축제의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인권에 관한 패널을 전시하면서 인권 계발(啓發)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자치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은 열심히 전시 패널을 둘러보셨고 그중에는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인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께 인권계발(啓發) 활동을 추진해 나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38회

나의 인권 메시지

~특선작품 소개~

나의 사회 참가 (초등학교 2학년)

나는 계속 머리를 길러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허리까지 내려오던 머리카락을 어깨 위까지 잘랐습니다. 헤어 도네이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헤어 도네이션이란 질병 등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발을 만들어 주기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30cm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유치원 고학년 때 허리까지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친구를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해 보지 않을래하며 엄마가 헤어 도네이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없어지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긴 머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는 눈물이 났지만 어딘가에 친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 준 미용사가 "고마워. 정말 기특하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면 다음에 또 헤어 도네이션을 하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 겨우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자랐기 때문에 두 번째 헤어 도네이션을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다. 하지만 저밖에 하지 못하는 일을 저 나름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가 헤어 도네이션입니다.

다음은 5학년 무렵에 기부하게 되는데 그 때는 멋진 언니가 되고 싶습니다.

'나답게' 가 인정되는 사회를 위해 (성인)

중학교 점심시간 내가 보건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찾아와서 "도시락 반찬은 뭐예요?"라며 물었습니다. 잠시 도시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 중에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는 남편이 도시락을 만든다는 말을 하자 "선생님, 여자라면 도시락은 선생님이 만들어야죠!"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집에서는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도시락을 만들어 주었고 일상의 가사도 분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드는 것은 나의 일, 설거지는 남편의 일. 그런 이야기를 하자 그 학생은 신기하다는 표정을 보이고서는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열 세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여자답게 하세요"라는 지적을 당한 기분이 들었고 도대체 몇 살부터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 시작되었는지 놀랍고 제 자신의 과거가 생각나서 괴로웠던 당시의 기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여자는 여자답게"를 강조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과는 달리 나는 남자아이들하고만 놀았고 20년 전에는 남자아이들의 취미로 간주되었던 게임이나 프로레슬링 등에만 관심이 있었던 나에게 "여자답게"란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여자답게 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다움' 을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답지 못한' 나는 '여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한때는 진심으로 '남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되면 두 번 다시 "여자답게 하세요"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 한 초등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몸은 여자이지만 남자처럼 행동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반 학생들이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놀리지 않았고 "왜 여자답지 못하니?"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실에서 그 아이는 활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교실에서 나도 함께 지내면서 성별에 따른 '다움' 이 아니라 '나다움' 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의 중요성을 어린이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교사가 되어 십 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아이들과 접할 때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답게' 를 아이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자신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나답게' 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들이 '나다움' 을 인정받는 체험을 하고 그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나는 아이들과 함께 '나답게' 가 인정받는 학교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복숭아를 보고 문득 생각한 것 (중학교 2학년)

올해도 연분홍빛의 싱싱한 복숭아가 도착했다. 후쿠시마현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보내주신 것이다. 할머니는 매년 후쿠시마현에서 자란 딸기나 버찌, 사과, 포도 등 제철 과일을 보내주신다. 그 과일들은 신선하고 품질도 좋고 달콤함도 맛도 확연히 다르다.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계속 보내주고 계시니까 벌써 14년이나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받지 못한 해도 몇 년 있었다. 그것은 지진 직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선량이 높아졌을 때였다.

현재는 오염제거가 진행되고 농작물의 철저한 검사가 실시되어 후쿠시마현산 농작물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다. 하지만 조금씩 수출이나 구매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후쿠시마현산은 구입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여전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뜬소문에 의한 피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솔직히 말해서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 우리 소비자들도 올바른 인식을 갖고 편견을 버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후쿠시마현이 활력을 갖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작년 가을, 원전 사고로 인해 요코하마에 피난해 있었던 소년에 대한 집단괴롭힘이 밝혀졌다. 그 소년은 전학한 직후인 초등학교 2학년 때 집단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균' 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소년의 수기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죽으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지진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는 살기로 결심했다.' 나와 같은 나이인 이 소년은 혼자서 고민하면서 참았을 것이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해 보면 가슴이 억눌려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와 동시에 그 소년은 그때는 약자였지만 인간으로서 강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생각했다.

이 집단괴롭힘이 발각된 후 다른 지역에서도 후쿠시마현에서 피난한 어린이들이 다수 집단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방사능이 옮으니까 다가오지 마"라든지 "너희들 때문에 원전이 폭발했다"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방사능이 옮는다 등과 같은 말은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 아니다. 정말 화가 난다. 피난한 사람들은 모두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우연히도 살고 있던 곳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원전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는 그들의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렇게도 차갑게 대할 수 있는지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다.

올바른 사실을 알고 남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자기를 컨트롤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집단괴롭힘이나 차별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그래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요즘 자주 발생하는 느낌이 든다.

나는 아이를 원하는가? (지원학교 전공과 2학년)

나는 진심으로 아이를 원할 수는 없다. 만약 아기가 생기면 출산은 해 보고 싶지만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청각장애가 있기때문이다. 아이도 나처럼 듣지 못하면 어떡하나? 가족 모두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데프 패밀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가 청각장애로 인해 고생했던 그 길을 걷도록 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해 내가 고생한 것을 아이도 경험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또 아이에게 청각장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나의 청각장애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아이는 나를 어떻게 이해해 줄까? 부모 자식 간의 의사소통 면에서 어려움도 많을 것 같다.

여하튼 불안밖에 없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삶도 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면 나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듣지 못하는 우리 삼형제를 여태까지 키워준 부모님에게 손자손녀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마음 속 어딘가에 있다. 근처에 사는 언니에게 아기가 있는데 부모님은 늘 그 아기를 기쁜 얼굴로 무척 귀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가능하다면 아이는 나와 같은 청각장애가 없고 다른 장애도 없고 건강한 사람으로 무사히 태어나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과 우리를 키우시던 시절의 고생을 다시 하시도록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엇갈리면서 뭐라고 형언하기 어려운 감정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솟구친다. 이것은 결국 나의 이기심일까?

나는 우리를 키워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싶다. 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없지만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똑바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때까지 확실하게 말해 주셨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대하면서 키워주셨다. 그런 어머니이기에 청각장애로 인해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 있어도 나는 바로 어머니와 상의하거나 말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 나는 어머니처럼 좋은 상담자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조금만 더 기대도 될까요?